



# 일짱 공부 짱

33개 특기적성교육·5,6학년 해외체험...

## “부럽다. 이 학교”

광주송원초등학교(www.k-songwon.es.kr) 학교탐방



### 특기적성교육 통해 미래 꿈나무 키워

#### 한발 빠른 신교육 프로그램

최근 초등학교과정을 들여다보면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해 다양화된 학습활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의 기본적 재능과 창의적 욕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재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제는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률적인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전부였고, 특별활동 시간 역시 크게 자리잡고 있지 않아 학생들의 재능 발굴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독자적인 운영방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현재는

선도적 교육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교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에 위치한 '광주송원초등학교' (교장 이병성)는 지난 1965년 광주속국민학교로 설립해 개교했으며, 1978년 광주송원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교훈 아래 600여 명의 학생들이 선진교육 시스템 하에서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계발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인간 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한 발 앞서가는 학교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이 학교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소인수 수준별 영어교육 및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서교육 및 논술평가, 정보화 사

회를 위한 정보활용 급수제, 잠재능력 및 적성계발을 위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학년별 테마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일 봉사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 4회 수학영재교실 운영,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과학영재교실운영, 5,6학년 해외문화체험학습 등도 실시하고 있다.



◆ 광주송원초등학교에는 다양한 수업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중국어수업, 예술교육, 체험학습.

그 동안 이 학교는 전 교직원들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최초의 신지식학교로 선정됐으며, 전국 창의력 경시대회 대상, 전국어린이동요잔치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특기적성우수학교 표창, 광주교육정보 대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송원초는 무엇보다 한 바자 이상 빠른 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른 학교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공립학교에 비해 조금 더 자유스러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이 학교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을 통해 정착화에 노력하고 있어 다른 학교에서 좀처럼 시도하지 않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통해 '예술영재' 키워

광주송원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교육'은 타 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의미는 같이 한다.

현재 33개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이 교육은 강사선정에서부터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오랜 경력을 갖춘 강사들을 중심으로 하루 3시간씩 배정해 특

기교육과정으로 보이는 것은 '재택수업'이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전파를 통한 PC통신이 도입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1996년부터 천리안, 나우누리 등의 접속통신망을 이용해 시작된 이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통신실에서 집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을 도입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운영에 가까운 이 제도는 자녀들의 교육에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으로 배양시키고 있으며, 5,6학년 정도에는 웬만한 일반인들보다도 빠른 속도의 자판치는 실력을 기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현재 휴무 토요일제도가 실시되어 '재택수업'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학교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수준높은 교육과정 개발...사교육 수요 학교가 흡수해

이 학교가 이런 선도적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함께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근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학원 등 학교 밖 활동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로 작용하고 있다.

송원초는 이런 학부모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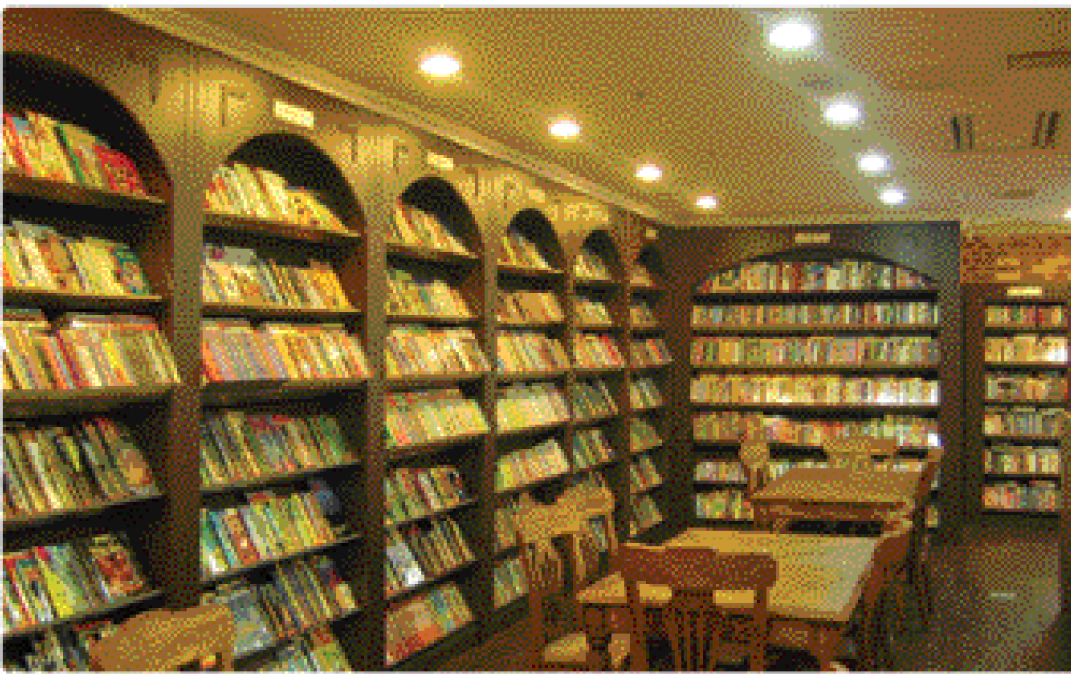
현재 이뤄지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일반 사립학교보다도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

단순히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닌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이 학교의 설명이다.

양원석 조인철 홍성민 기자 jro@eduyonhap.com

## 영어독서를 게임하듯 즐겁게~

리딩랩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독서프로그램 '전국 초등학교에서 인기'



ReadingLAB은 ERP (자발적 독서를 목적으로 독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 독서 촉진 프로그램)를 개발, 실시하는 영어 전문도서관입니다.

리딩랩은 독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영어독서촉진 프로그램인 ERP(Extensive Reading Program)를 통해 개발된 영어독서를 하게 함으로써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미국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레벨 테스트를 실시, 학생의 레벨에 맞는 책을 선정해주고 책을 읽은 후에는 북마크와 단어테스트를 통해 이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각 책마다 일정 포인트가 지정되어 있어 북마크, 단어테스트를 80점 이상 통과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영어독서를 게임하듯 즐겁게 계속 지속시켜 줍니다. 영어에 흥미가 없는 학생도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영어에 친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의 레벨은 미국 초등학교 추천도서 가운데 나이별로 골라 그림의 비중, 문장길이, 어휘의 수, 책 내용을 통해 수준별로 난이도를 분석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및상담문의: 031) 714-1871

## 초등 영어교육의 선구자, 20여 년 전부터 정규교과 편성

광주송원초등학교는 '글로벌'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던 80년대부터 이미 영어수업을 정규교과로 편성했다.

과감한 변화였고 모험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본 학교의 판단은 옳았다. 영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학교의 한 바자 앞선 판단은 더욱 빛을 발했다. 다른 학교가 앞 다퉈 영어를 정규교과를 편성하던 무렵 학교는 이미 영어 수업시간을 주 5시간으로 크게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학교의 영어교육 목표는 명확하다. 조기유학, 고액의 사교육 부담, 영어문화체험의 부족 등 세 가지 난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들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학교는 영어 정규수업시간을 늘리는 한편 원어민 교사와 영어 담당교사를 늘렸다. 영어 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확대한 것은 물론이다.

영어도서관, 단계별 장서 5천권...평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효과 높여 영어도서관도 설립했다.

학교는 영어도서관을 설립하면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영어도서관을 운영 중인 서울 지역 학교(서울 한양초등학교)까지 방문하는 열의를 보였다.

특히 학교가 운영하는 영어도서관은 학년과 학생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구비된 각종 영어동화책과 학생들이 책 읽은 뒤에 이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관리 프로그램(ERP, Express Reading Program)이 연계되어 있어 그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장서만도 5천권에 이른다.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도 매우 좋다.

학교는 매일 3권씩 읽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반응과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교에서 학교의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 교육의 확대, 해외문화체험 실시 학교는 영어교육 확대와 함께 제2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 영어교육에 있어 한 바자 빠른 행보를

보인 것처럼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학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학교는 현재 주 1회 진행되는 중국어교육을 내년에는 주 2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해외문화체험은 학생들에게 세계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체험행사는 단순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문화체험은 철저하게 '과학체험'을 주제로 진행된다.

중국어문화체험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교는 이 행사에 대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얻고 느끼는지가 중요하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학교는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일본과 중국의 자매학교와의 상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